

《범죄지리학》의 반동성

김철희

미국의 온갖 범죄를 합리화하고있는 《범죄지리학》리론의 반동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범죄로 얼룩진 미국사회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미화분식하고있는 현대 미국범죄학리론의 진면모를 까밝히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범죄지리학》리론이 미국의 범죄적인 사회제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있는 범죄학리론들중의 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비과학적인 궤변으로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실현에 적극 복무하고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500페이지)

《범죄지리학》은 범죄현상을 지리학과 지도학, 통계학적 및 생태학적인 연구방법을 리용하여 미국사회의 온갖 범죄를 합리화하고 지배계급의 통치실현에 복무하는 반동적인 범죄학학설이다.

《범죄지리학》은 지리적공간의 각도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안에서의 범죄의 기본법칙을 연구한다는 범죄학의 한개 분과학문을 말한다.

《범죄지리학》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전쟁을 통한 미국경제의 급속한 팽창이 가져온 혼란된 사회질서와 함께 급증하는 범죄들에 대처하려는 미국지배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20년대에 출현하였으며 미국의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통치배들의 구미에 맞게 부단히 각색되어 온 반동적인 범죄학리론이다.

미국에서 《범죄지리학》은 각이한 지리적조건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분야와 범죄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문지리학과 기후와 지형, 물흐름, 계절 등 자연지리적요소들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자연지리학으로 나뉘어 호상련관속에서 그리고 여기에 범죄현상에 대한 통계학적방법과 이것을 지도로 고착시키는 지도학적방법, 생태학리론을 적용하여 미국의 범죄현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있다.

미국의 통치배들과 정책작성자들은 바로 《범죄지리학》과 같은 범죄학리론들의 연구에 의하여 나온 각이한 도시들과 구역들에서의 범죄발생률과 범죄통계자료들에 근거하여 그 무슨 《범죄예방대책》을 세우고 범죄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범죄지리학》연구의 그 무슨 의의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의 집권층과 그를 대변한 어용범죄학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오늘 미국에는 사회의 온갖 범죄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잡다한 리론들이 고안되어 범죄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의 실현에 리용하려는 미국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을 리론적으로 적극 안받침하고있다.

미국의 통치배들과 그 어용사환군들이 《범죄지리학》과 같은 학문아닌 학문이 마치도 미국의 범죄예방에 기여하는듯이 떠들어대고있지만 《범죄지리학》리론이 미국의 사회경제적 근원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범죄를 자연적인 사회적현상으로 합리화하고 그릇된 범죄관에

기초하고있는 지배계급의 형사정책실현을 리론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적극 복무하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리론이라는것을 결코 숨길수 없다.

《범죄지리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미국사회에서 범람하는 범죄를 지리적 현상으로 묘사함으로써 미국에서 반동적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를 자연적현상으로 합리화하고있다는데 있다.

범죄는 의식을 가진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사회공동의 리익에 위험을 주는 사회적현상이며 결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현상이 아니다. 사회적현상인 범죄를 자연의 합법칙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리학과 리관속에서 연구하는것은 범죄를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에 의하여 사회에 가해지는 사회적인 위험현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현상으로 보는 비과학적인 관점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범죄의 계급적성격을 외면하고 범죄학연구의 기본목적인 범죄원인에 대한 규명을 회피하려는 반동적인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은 지구의 땅과 대기, 물, 생물권을 포함하는 지리권의 구성과 그 변화발전, 일정한 지역의 특성과 그 보호 및 리용과 개조, 생산력배치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여기에는 자연지리학과 경제지리학, 지도학 등이 속한다.

물론 초기에 주로 지구전체와 개별적지방들의 사물과 현상들을 적어두는데 불과하였던 지리학이 지리적자료들의 축적과 개별과학들의 발전과 함께 지구우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 및 사회경제적현상들의 지리적배치와 그 합법칙성을 해명하는 과학적지리학으로 체모를 갖추어오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포괄내용과 범위가 넓어지고 학문의 구성도 매우 다양한 지리학으로, 경제학문으로 발전하여왔지만 그것은 자연개조와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자연변화의 방향을 예보하고 자연의 유리한 특성을 계속 살리고 불리한것을 미리 극복하고 보호하려는데 목적을 둔 자연과학분야에서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범죄학은 자연지리적현상들을 연구하고 그 합법칙성을 해명하는 지리학을 사회의 범죄현상에 인위적으로 적응시켜 마치도 범죄가 사회에서 응당 있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인듯이 오도하고있다.

미국의 통치배들과 그 사환군들인 어용범죄학자들은 바로 범죄현상에 대한 이와 같은 외곡을 통하여 미국의 범죄가 내포하고있는 계급적성격과 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교묘하게 은폐시키고 범죄를 합리화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범죄지리학》리론이 미국의 범죄를 생태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리학적으로 합리화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원래 《범죄지리학》은 생태학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사이의 호상관계를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개 분과학문이다. 자연의 기능에 대하여 연구하는 생태학의 개념이 사용된것은 1866년으로서 얼마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어용범죄학자들은 생태학에서 쓰이는 개념들을 범죄현상들에 적응시켜 미국사회의 범죄를 자연이 부여하는 하나의 생태학적인 자연현상으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실례로 생태학상의 개념의 하나인 동일무리속의 동물이나 식물이 자연조건의 제약밑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생현상》은 인간사회에서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도시의 《중국거리》라든가 《흑인지역》, 《이민촌》 지어 공업구, 상업구, 《점령지역》 등이 있게 되는것은 모두 《공생현상》의 특징을 반영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범죄를 지리학적으로 합리화한 《동심원리론》에서는 도시구역의 원심으로부터 번두리로 퍼져나가는 《발전력량》에 의하여 도시의 《동심원》이 무단히 확대됨으로써 도시의 《동심원》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근대도시의 발전은 총적으로 원심(도시중심구역)으로부터 번두리로 퍼져나가는 기본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어용범죄학자들은 도시의 발전이 외부에 확대되는 크기가 각이한 여러개의 《동심원》들을 형성한다는 《동심원》리론을 범죄현상에 적용하여 도시구역내의 범죄도 역시 일정한 법칙을 가지게 된다는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았다. 그 법칙이란 원심으로서의 원래의 도시중심구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초우에서 발전하다가 발전이 포화되면 반경이 3km 되는 《원》을 형성하며 도시의 경제중심은 그 원안에 놓이고 원안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구역내에서 범죄가 가장 집중되고 범죄률이 제일 높으며 기타 구역에서의 범죄률은 일반적으로 《중심이 클수록 범죄률》이 낮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도시를 《중심상업구》, 《과도지대》, 《로동자거주구역》, 《고급주택구역》, 《통근표사용자거주구역》으로 나누고 매 지역에서의 범죄률을 제시하여 《동심원리론》을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도시의 경제중심인 《중심상업구》에서는 범죄률이 낮지만 처음에는 동심원중심이였으나 도시의 확장으로 하여 쇠퇴해진 《과도지대》는 《죄와 악이 빈번히 발생》하는 빈민굴로서 범죄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동심원리론》은 당시 미국의 범죄를 자연계의 생물학적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던 《범죄생태학》에 이론적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미국범죄학의 《도시범죄지리학》을 비롯한 《범죄지리학》리론발생의 시초로 되었다.

생태학을 범죄학리론전개의 기초로 삼는 미국의 《범죄지리학》은 사회적현상으로서의 범죄를 사람의 사회적활동과는 동떨어져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현상으로, 사람이 살며 존재하는 사회를 약육강식의 생존경쟁법칙이 작용하는 자연계의 동물들의 무리로 보는 극히 반동적인 리론이다.

범죄는 자연재해와 같이 사회에 위협을 주는 자연적현상이 결코 아니며 철저히 범죄자의 구체적인 행위로 사회에 가해지는 사회적인 위험현상이다.

범죄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동심원리론》과 같은 《범죄지리학》리론의 견해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을 한갓 통치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지배층의 반동적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 초기 《동심원리론》으로부터 시작된 각양각색의 《범죄지리학》리론들은 오늘날 미국의 반동적인 사회체도가 발생시킨 온갖 범죄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범죄에 대한 《조종통제》로서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려는 통치계급의 반동정책을 리론적으로 담보해주는 도구로 적극 리용되고있다.

그것은 또한 《범죄지리학》리론이 반동적인 미국의 사회체도와 지배층의 반인민적통치에 근원을 두고있는 범죄의 원인규명을 회피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범죄지리학》은 미국사회에서 범람하고있는 범죄현상을 지리학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범죄적현상들에 대한 그 무슨 《법칙》을 연구하는 것에 한정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는 범죄학의 다른 리론들과는 달리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회피하고있다.

미국의 《범죄지리학》리론들이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는것은 그

자체가 범죄를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는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대하고있는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범죄지리학》이 미국집권층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복무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범죄지리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그릇된 범죄관으로 일관되어있는 미국의 반동적인 형사정책을 실현하는데 적극 복무하고있다는데 있다.

미국의 력대통치배들은 범죄를 통한 형사적지배를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실현의 중요한 공간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를 정당화할수 있는 반동적인 형사정책을 실시하여왔다. 미국의 통치배들은 이를 위해 범죄를 사회의 존재와 함께 하는 《사회의 구성》으로 규정하고 범죄에 대한 《조종》과 《통제》로서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범죄학리론들을 류포시켜왔던것이다.

미국의 범죄학리론의 하나인 《범죄지리학》역시 범죄현상들에 대한 지리학적분석으로 범죄발생의 특징과 그 무슨 《합법칙성》들을 제시함으로써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형사정책 다시말하여 범죄에 대한 《조종》과 《통제》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보다 쉽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이론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미국의 《범죄지리학》리론들은 우선 범죄현상들에 대한 지리학적분석으로서 미국의 범죄를 합리화하는것과 함께 반동적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저들의 반동적통치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이론적수단들을 제공해주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범죄지리학》에서는 도시의 구성요소들인 도로와 다리, 철도역, 광장, 건축물은 물론 도시를 거쳐 흐르는 강하천과 도시에 있는 산지 등 지리적요소들이 범죄와 각이한 정도에서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지어 도시의 거주구역분포와 거주조건, 도시구역의 자연적구분 등도 범죄의 발생에 매우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범죄지리학》에서는 《범죄구역》이라는 저들의 연구에서 《특정한 구역내에서 청소년범죄률이 높으면 여자청소년범죄률도 높으며 재산범죄의 범죄률이 높으면 살인범죄률도 높아지는데 이것은 특정한 범죄구역의 기본특징》이며 합법칙성을 띤다는 비과학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러한 특정한 범죄구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률과 경제와 문화의 기형적발전, 높은 인구밀도, 거주조건악화, 도시기능의 쇠퇴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구역에서의 특징에 기초하여 그들은 통계학적방법으로 5만여명의 범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시카고도시범죄분포도》를 작성하여 경찰을 비롯한 통치기관들에 제시하였다.

이 《범죄구역》이란 다름아닌 사회의 최하층인 노동자들과 집권층의 반인민적통치로 하여 빈민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그들이 말하는 범죄자들이란 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범죄구역》에 대한 《지리학적인연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범죄지리학》리론은 저들의 반동적통치에 장어로 되는 자그마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지배계급의 정책실현을 이론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 《범죄지리학》리론을 비롯한 미국의 범죄학리론들은 그 어느것이냐 다 미국의 반동적정책작성과 그 실현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론적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의 《범죄지리학》리론들은 또한 부단히 새로운 범죄개념들을 고안하여 제공해줌으로써 미국의 통치배들이 마치도 범죄예방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는듯 한 인상을 조성시켜주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범죄에 대한 《조종》과 《통제》를 통하여 사회에 범죄에 대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는것과 함께 그 방지를 위한 방대한 통치기구들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통치기관들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국민들속에 조성시키는것은 미국의 교활한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뿐만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에 열을 올리고있는 《도시범죄지리학》을 놓고보아도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새롭게 발생하고있는 범죄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어 반동적지배계급의 통치를 보다 쉽게 실현해나가도록 해주었다.

《도시범죄지리학》은 그 특징과 범죄수법, 범죄형태들을 제시해주는것과 함께 이 범죄들중에서 특히 지하철도범죄가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며 그 범죄자의 대다수가 흑인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통치기관들로 하여금 흑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수 있는 근거를 안겨주었다.

이것은 바로 《범죄지리학》리론이 지배계급의 반동적정책실현에 통치기관들이 적극 나설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명사로 되고있는 범죄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적극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통치배들의 반동적형사정책실현을 리론적으로 담보해주고있는 《범죄지리학》을 비롯한 범죄학리론들의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철저히 폭로비판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법률적으로 옹호고수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